

## 충남·경기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방안

강영주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클러스터의 효과가 광역 시·도 단위 지역에 한정된다는 암묵적 가정 하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계획이 시·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혁신 5개년계획은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수립되어 지역별 RIS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활용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계획은 행정역량 확보 및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 경제권과의 불일치 가능성이 있고 규모의 경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산업의 효율적 육성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와 자치단체별 계획의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친 초광역 혁신클러스터는 지자체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으나, 인근지역에 있는 특화사업간 또는 산업·기술적 상호연계를 촉진시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충남·경기 초광역혁신클러스

터 구축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분석하고 초광역클러스터의 성장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상생발전기획단」의 설립·운영, 기업의 신규설립과 함께 밸류체인을 고려한 기업유치전략의 구사,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권역공동 전략산업 설정,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 실시, 지역 브랜드 컨셉의 설정과 원 스톱 솔루션의 제공 및 정보발신 등의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과 함께 초광역혁신클러스터를 성공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 지역의 상생협력의지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양 지역의 상생·협력의지가 있을 때 혁신클러스터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광역클러스터의 지역혁신체제를 이루는 각 주체들은 충남경기 초광역클러스터의 경쟁지역은 세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양 지자체는 단일권역으로서의 의식 고취를 위해 권역 내에서의 불균형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